

서론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환경이란 청소년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김선희, 김경연, 1998).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해서 부모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회적 지지요소로(김진아, 2016), 부모는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삶의 선택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며 자녀의 가치, 흥미, 목표 설정 등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조력하는 긍정적인 요인임과 동시에 청소년의 부적응이나 문제의 주된 발생 원인으로 가정되기도 한다(고성혜 1995; 김준호, 김순형, 1992; 김진호, 2010; 한현아, 도현심, 2008).

부모양육태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Becker, 1964)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녀 왔다. 부모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김지근, 이기학, 2008; 김현주, 홍상황, 2015;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장영애, 박정희, 2008), 문제행동(고정자, 2005; 이정윤, 최수미, 2011; 주은지, 2009; 허묘연, 옥정, 2013), 우울(강승희, 2010;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또래관계(김주연,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2012; 우수정, 2013)등이 있다.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관심을 갖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김진아, 2016; 유미영, 홍혜영, 2010;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Gonzalez & Wolters, 2006). 학업성취는 단순히 학습자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 조건, 방법으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중요한 환경적 변수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 교육환경에서는 학교생활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부모들이 여러 형태로 자녀의 생활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실제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선아, 2014).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은 학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며(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부모의 지원과 감독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Fehrmann, Keith, & Reimers, 1987; Pong, Hao, & Gardener, 2005; Sanders, 1998).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과 학업성취를 촉진시키며(Baumrind, 1971),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경우 비민주적일 때보다 학습활동 적응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김지근, 이기학, 2008). 마찬가지로 유미영과 홍혜영(2010)은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여 자녀의 자율을 존중함에 따라 높은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는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로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홍봉선, 남미애, 2005) 친구관계, 학습내용 등 다양한 변인들과 관계가 있다(김진아, 2016). 실제로 학업성취는 진로문제와 함께 청소년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하다. 학교 및 지역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이든 자신의 학업성취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저조한 학업성취는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선혜, 2004).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습의 결과가 강조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점점 학습 흥미가 낮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며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김태은, 이화진, 오상철, 노원경, 2012). 실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보고서 작성, 시험공부 등의 전반적인 학업 부분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지연행동들을 많이 보였으며(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이지혜, 이수정, 박은혜, 이상민, 2014), 가치관의 불안정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부정적 자아개념의 형성과 무기력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숙영, 1998; 유은석, 1996). 이러한 결과들은 학교수업이나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행동과 만족하는 감정 뿐 만 아니라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이를 통해 학업성취를 이루는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규미, 김명식, 2008). 즉 학업수행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으며, 역으로 성공적인 학업 수행은 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을 견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업정서는 학업활동의 결과 및 수행과정에서의 정서경험으로(Pekrun, 2000) 학업성취 및 진로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정적 정서가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면 부정적 정서는 주의력을 감소시켜 비효율적인 학습전략과 관련 있다(Pekrun & Perry, 2002). 성취목표유형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성적, 노력, 학습전략을 살펴본 연구에서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한 집단이 성적, 학습전략, 노력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양명희, 2009), 학습자가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학습전략으로 연결되어(양명희, 김은진, 2010)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학업 수행과정에서 긍정정서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긍정적 학업정서를 위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유지현, 2013; 조한익, 2013). 학업을 통한 불안, 화, 수치심, 절망감 등의 부정정서는 주의 집중저하, 동기, 학습전략 인지자원 등을 약화시킴으로써(Op't Eynde, De Corte, & Verschaffel, 2007; Pekrun & Maier, 2009) 학업 행동의 몰입을 방해하며 진로 설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부정적 정서는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하며 자신감 저하, 관계에서의 갈등을 유발한다(Chen & Li, 2000; Cole, 199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갖게 하며, 긍정적 양육태도는 긍정적 정서와 행동을 갖게 하므로(Baumrind, 1971)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청소년 자녀가 느끼는 학업정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모의 양

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은 높아지며(강나현, 2009), 학습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혜진, 2011). 학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부정적 학업정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며(이수진, 2014), 반대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존감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Eskilson, Wiley, Muehlbauer, & Dodder, 1986).

이수진(2014)은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 유형이 불안, 수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성취정서와 정적상관을 보고하였으며,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유형은 긍정적인 성취정서와 정적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를 살펴본 서지혜와 이종숙(2014)의 연구에서 모의 자율성지지, 관여는 자기결정성이 높은 내재적 동기와 정적상관을 보고함에 따라 모의 아동에 대한 자율성 지지와 양육에 대한 분명한 규칙이 있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는 높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형성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윤라경,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우울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과잉 간섭하여 성취동기를 떨어뜨리고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게끔 하며(Lepper & Cordova, 199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유아의 과제수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권희경, 2009)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관련 성취나 수행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유미영과 홍혜영(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 하였으며, 어머니 양육태도와 학업성취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근과 이기학(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경우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습활동적응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박기중, 2000; Carlson, Uppal, & Prosser, 2000; Radziszewska, Richardson, Dent, & Flay, 1996)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온정이 높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높은 학업성취와 더불어 긍정적인 학업정서를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박기중, 2000; 유지현, 장경문, 2007; 임선아, 2014; 황혜자, 최운화, 2003) 부모양육태도의 유형별에 따른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계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모의 양육태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김지근, 이기학, 2008) 자녀의 양육은 전통적으로 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녀의 양육이 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만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의 차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업성취

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는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 및 학업정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를 위하여 서울·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에 위치한 중학생 총 862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정도, 자기조절학습태도, 학업정서,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8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364명(42.8%), 여학생이 487명(57%)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249명(29.3%), 2학년이 251명(29.5%), 3학년이 351명(41.2%)이었다.

측정도구

모의 양육태도

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예비조사 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05)에서 사용한 학생용 부모-자녀관계 질문지 가운데 모와의 관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민주적 양육태도(5문항)와 비민주적 양육태도(5문항)의 2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4점 Likert 방식(1점: 전혀아니다~4점: 항상그렇다)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민주적 태도 .93, 비민주적 태도 .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설문조사 직전 학기(2015년 1학기)의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점수를 구간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범주의 시작은 연구대상의 개별 점수에 대한 빈도분석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50점 이하'(1구간), '50점 초과~55점 이하'(2구간), '55점 초과~60점 이

하(3구간)의 방식으로 95점 초과~100점 이하(11구간)까지 총 11구간으로 이루어졌다. 구간의 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업성취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정서

청소년의 학업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Pekrun, Goetz, Frenzel, Barchfeld와 Perry(2011)이 개발한 AEQ(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을 한국어로 번안한 K-AEQ(도승이, 손수경, 변준희, 임지윤, 2011)를 이수진(2014)이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 가운데 학습상황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K-AEQ는 즐거움(9문항), 불안(11문항), 화(9문항), 수치심(11문항), 절망감(13문항), 자부심(5문항)의 6개 하위영역의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방식(1점: 전혀아니다~5점: 매우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즐거움 .85, 불안 .87, 화 .92, 수치심 .91, 절망감 .88, 자부심 .77 이었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는 2015년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해 서울·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의 중학교 1~3학년 학생 862명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 학업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총 851부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의 전반적인 특징 및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유형분류를 위하여 K-Means방식의 비위계적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군집을 분류하였다. 셋째, 분류된 군집에 따라 학업성취 및 학업정서의 하위영역에서 군집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Scheffé 방식의 사후검증을 포함한 일변량(ANOVA) 및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의 전반적인 특성 및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및 학업정서의 차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가운데 민주적 태도는 학업성취($r=.102, p<.01$), 긍정적 학업정서인 즐거움($r=.241, p<.001$) 및 자부심($r=.249,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부정적 학업정서인 불안($r=-.198, p<.001$), 화($r=-.258, p<.001$), 수치심($r=-.191, p<.001$), 절망감($r=-.246, p<.0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 비민주적인 양육태도는 부정적 학업정서($r=.299\sim.372, p<.001$)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학업성취($r=-.173, p<.001$) 및 긍정적인 학업정서($r=-.080\sim-.173, p<.05\sim.0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업성취는 긍정적 학업정서와는 정적인 상관관계($r=.407\sim.488, p<.001$)를, 부정적 학업정서와는 부적인 상관관계($r=-.127\sim-.381, p<.001$)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학업성취 및 긍정적 학업정서(즐거움, 자부심)가 높고,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가 비민주적일수록 학업성취가 낮고 부정적 학업정서(불안, 화, 수치심, 절망감)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851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모의	1	1.000								
양육태도	2	-.264***	1.000							
학업성취	3	.102**	-.173***	1.000						
학업정서	4	.241***	-.080*	.407***	1.000					
	5	-.198***	.299***	-.127***	.041*	1.000				
	6	-.258***	.322***	-.263***	-.245***	.737***	1.000			
	7	-.191***	.327***	-.218***	.026	.807***	.684***	1.000		
	8	-.246***	.372***	-.381***	-.191***	.771***	.810***	.795***	1.000	
	9	.249***	-.173***	.488***	.769***	-.013	-.229***	-.045	-.279***	1.000
M		20.095	12.775	7.319	30.667	27.684	20.414	25.407	24.410	20.032
SD		4.282	5.175	3.099	6.916	7.652	7.552	8.402	8.857	4.501

* $p<.05$, ** $p<.01$, *** $p<.001$

주. 1.민주적 태도 2.비민주적 태도 3.학업성취 4.즐거움 5.불안 6.화 7.수치심 8.절망감 9.자부심

자기조절학습 유형 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인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라 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K-Means 방식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군집(K)의 수는 Susman, Schemmlk, Pinirakis와 Garipey(2001)이 제안한 다양한 K값을 차례대로 넣어가면서 변량분석에서 제곱합이 최소화 되면서 군집간의 차이가 가장 분명해 지는

숫자의 군집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군집 간 차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Scheffé 방식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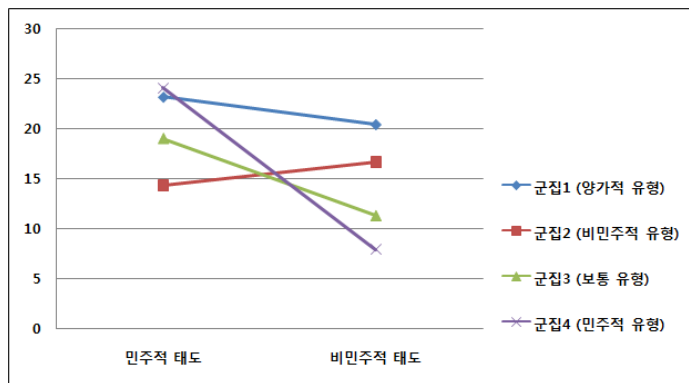
<표 2> 모의 양육태도 유형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전체	F	사후검증
사례수(%)	124(14.57)	191(22.44)	275(32.31)	261(30.66)	851(100.00)	-	-
군집 민주적 태도	23.15(2.20)	14.32(2.65)	18.97(1.98)	24.06(1.52)	20.10(4.28)	938.344***	4>1>3>2
중심 비민주적 태도	20.38(3.46)	16.64(2.55)	11.28(2.31)	7.91(2.62)	12.78(5.17)	796.581***	1>2>3>4

군집1: 양가적 유형, 군집2: 비민주적 유형, 군집3: 보통 유형, 군집4: 민주적 유형

*** $p < .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양육태도의 유형분류를 위한 군집분석에서 군집1은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를 모두 높게 보이는 유형(양가적 유형)으로 전체의 14.57%(124명)를 차지하였다. 군집2는 비민주적 태도점수는 높은 반면 민주적 태도 점수는 낮은 특성을 보이는 유형(비민주적 유형)으로 전체의 22.44%(191명)를 차지하였다. 군집3은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태도가 모두 평균수준을 보이는 유형(보통 유형)으로 전체의 32.31%(275명)를 차지하였다. 군집4는 민주적 태도는 높은 반면 비민주적 태도는 낮은 특성을 보이는 유형(민주적 유형)으로 전체의 30.66%(261명)를 차지하였다. 각 군집의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별 프로파일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모의 양육태도유형 프로파일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유형 간에 학업성취의 차이를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및 학업정서의 차이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방식의 사후검증을 포함한 일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차이

변인	군집1 (n=124)	군집2 (n=191)	군집3 (n=275)	군집4 (n=261)	전체 (N=851)	F	사후검증
학업성취	6.67(3.45)	6.55(3.01)	7.51(2.98)	7.98(2.94)	7.31(3.10)	10.54 ^{***}	4>3>1,2

군집1: 양가적 유형, 군집2: 비민주적 유형, 군집3: 보통 유형, 군집4: 민주적 유형

*** p<.001

표 3에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군집4(민주적 유형), 군집3(보통 유형), 군집1(양가적 유형)과 군집2(비민주적 유형)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집1과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집단이 비민주적이거나 양가적인 집단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군집1(양가적 유형)과 군집2(비민주적 유형)는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정서의 차이

다음으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방식의 사후검증을 포함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정서 차이

변인	군집1 (n=124)	군집2 (n=191)	군집3 (n=275)	군집4 (n=261)	전체 (N=851)	F	사후검증
즐거움	31.19(7.85)	28.62(6.17)	29.84(6.36)	32.78(6.95)	30.67(6.92)	16.06 ^{***}	4>3>2
불안	29.68(9.22)	30.70(6.99)	27.39(6.91)	24.84(6.96)	27.68(7.65)	27.12 ^{***}	1,2>3>4
화	22.35(8.41)	23.85(7.20)	20.44(6.62)	16.94(6.80)	20.41(7.55)	38.99 ^{***}	2>3>4
수치심	28.34(9.50)	28.61(8.34)	25.02(7.38)	22.09(7.55)	25.41(8.40)	31.01 ^{***}	1,2>3>4
절망감	27.79(9.60)	28.83(8.68)	23.69(7.91)	20.33(7.41)	24.41(8.86)	47.77 ^{***}	1,2>3>4
자부심	19.96(4.83)	18.54(3.82)	19.60(4.09)	21.62(4.75)	20.03(4.50)	19.96 ^{***}	4>1>2

군집1: 양가적 유형, 군집2: 비민주적 유형, 군집3: 보통 유형, 군집4: 민주적 유형

***p<.001

표 4에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정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즐거움은 군집4(민주적 유형), 군집3(보통유형), 군집2(비민주적유형)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

이고 있었다. 그러나 군집1의 경우 군집3 및 군집4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안, 수치심, 절망감의 정서는 군집 1(양가적 유형)과 군집2(비민주적 유형), 군집3(보통 유형), 군집4(민주적 유형)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순을 보였다. 화의 경우 군집2(비민주적 유형), 군집3(보통 유형), 군집4(민주적 유형)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군집1(양가적 유형)은 군집2(비민주적 유형) 및 군집3(보통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부심의 경우 군집4(민주적 유형), 군집1(양가적 유형), 군집2(비민주적 유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군집3(보통 유형)은 군집2(비민주적 유형) 및 군집1(양가적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민주적 유형은 즐거움과 자부심의 긍정적 학업정서를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가지고, 비민주적 유형과 양가적 유형은 불안, 화, 수치심, 절망감의 부정적 학업정서를 민주적 유형 및 보통 유형에 비해 더 높게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민주적 유형과 양가적 유형은 불안, 수치심, 절망감의 부정적 학업정서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의 중학교 재학생 851명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 학업정서를 측정 후 상관분석, K-Means군집분석, Scheffé 방식의 사후검증을 포함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가 모두 높은 양가적 유형(군집1, 14.57%), 비민주적 태도는 높고 민주적 태도는 낮은 비민주적 유형(군집2, 22.4%),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가 모두 보통 정도를 보이는 보통 유형(군집3, 32.31%), 민주적 태도는 높고 비민주적 태도는 낮은 민주적 유형(군집4, 30.66%)의 네 가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4유형인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통제와 성숙요구 수준이 높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온정성이 높다(Baumrind, 1971).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민주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높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곽수란, 2006; 김민정, 2004) 민주적 유형의 자녀들은 네 가지 군집유형 중에서 학교생활 적응이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군집 2유형인 비민주적 양육태도는 민주적 양육태도처럼 통제와 성숙요구 수준이 높지만 자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 자신의 기준에 따르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Hinde, Meller와 Templin(1983)은 비민주적 부모의 자녀는 또래관계에 적대적이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비민주적 유형의 자

녀들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군집 1유형인 양가적 태도는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를 혼합하여 나타내는 양육태도로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 있으며 정신건강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신현균, 2002), 양가적 유형의 청소년 자녀는 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로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감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양가적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모와의 상호작용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가지 군집유형 중에서 양가적 유형과 비민주적 유형은 부정적인 모양육태도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 자신의 양육태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민주적 유형(군집4), 보통 유형(군집3), 양가적 유형(군집1)과 비민주적 유형(군집2)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경우 비민주적일 때보다 학습활동 적응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김지근, 이기학, 2008)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황혜자, 최윤화, 2003)를 볼 때, 민주적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부모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클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전반적인 학업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박영옥, 2008)와 모가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관심을 갖고 온정적으로 대하며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녀의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연구결과(서지혜, 이종숙, 2014)를 지지한다. 반대로 비민주적 유형에서 가장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비민주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부적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임선아, 2014)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정서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긍정정서인 즐거움과 자부심의 경우 민주적 유형(군집4)이 비민주적 유형(군집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정서인 불안, 수치심, 절망감의 경우 양가적 유형(군집1)과 비민주적 유형(군집2)이 보통 유형(군집3)과 민주적 유형(군집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때 양가적 유형(군집1)과 비민주적 유형(군집2)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정정서인 화의 경우 비민주적 유형(군집2), 보통 유형(군집3), 민주적 유형(군집4)의 순으로 나타나 양가적 유형(군집1)이 비민주적 유형(군집2)이나 보통 유형(군집3)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유형과 긍정적인 성취정서와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이수진(2014)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특히

정서는 집중하고 사고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Pekrun et al., 2002), 학업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습하는 것을 즐겁게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학업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는 민주적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부정정서인 불안, 수치심, 절망감의 경우 양가적 유형과 비민주적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 공격성, 대인관계 부적응을 초래하여 불안정한 정서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류동훈, 2000) 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부정적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는 자신의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모는 자신의 양육태도를 민주적 양육태도, 비민주적 양육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지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다수의 모는 양가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모는 자녀의 발달단계 및 상황에 따른 양육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 모의 상태에 따른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아닌 자녀의 특성에 맞는 일관된 양육태도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둘째, 양가적인 양육태도와 비민주적 양육태도로 지각한 자녀의 경우 부정적 학업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학업정서는 향후 학업에 대한 몰입도와 현재 학업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모-자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도한 과제 수행과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이 큰 우리 교육환경은 부모의 비민주적인 양육태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자칫 상벌을 통한 학업효과를 기대하는 경우 모의 양가적인 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모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동기 및 안정감을 저해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기에 정서적 혼란감을 증폭시키지 않고 발달적 과업인 학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일관성 있는 모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민주적 양육태도는 높은 학업성취와 긍정적 학업정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가족 안에서 모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일방적인 훈육이나 모자신의 스트레스나 감정상태가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자녀의 보다 건강한 성장과 모-자녀간의 긍정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의 중학생 851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과 많은 수의 대상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적 태도 및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라 유형화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년의 경우 발달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욱 뚜렷해지고 동성 및 이성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질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유형이 남성 및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후속연구를 통하여 밝혀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나현 (2009).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또래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고성혜 (1995). 청소년 비행의 개념 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권희경 (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3(4), 79-98.
- 김민정 (2004).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선희 (2004).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학교생활에 나타난 몰입과 소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주연,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2012).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 또래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3(1), 111-131.
- 김준호, 김순형 (1992).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근, 이기학 (2008).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조합패턴과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9(3), 1183-1200.
- 김진아 (2016).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상담학연구, 17(2), 303-326.
- 김진호 (2010). 청소년문제행동과 보호환경의 관계에 대한 문제행동통제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7(4), 151-173.
- 김태은, 이화진, 오상철, 노원경 (2012).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분석. 교육심리연구, 26(2), 505-521.

- 김현주, 홍상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9-134.
- 노숙영 (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승이, 손수경, 변준희, 임지윤 (2011). 한국어판 성취정서 질문지(K-AEQ)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4), 945-970.
- 류동훈 (2000). 교사와 부모에 대한 아동의 수용-거부 지각과 사회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기종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옥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혜, 이종숙 (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429-454.
-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 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자기조절학습과 지연행동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3(4), 277-292.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1), 171-187.
- 양명희 (2009).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 정서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23(1), 51-71.
- 양명희, 김은진 (2010). 정서조절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서를 매개로 하는 관계 검증. 교육심리연구, 24(2), 449-467.
- 우수정 (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6), 583-590.
- 유미영, 홍혜영 (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4(4), 915-937.
- 유은석 (1996). 집단상담을 통한 학습부진아의 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지현 (2013). 학업적 정서조절,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교육심

- 리연구, 27(3), 715-738.
- 유지현, 장경문 (200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학업적 자율감, 학업성적과의 관계. 학습장애연구, 14(1), 117-133.
- 윤라경 (2010).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이상적 양육태도와 실제양육태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수진 (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정서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최수미 (201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635-650.
- 이지혜, 이수정, 박은혜, 이상민 (2014). 대학생의 지연동기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3), 479-497.
- 이혜진 (2011).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아 (2014). 구조관계모형 검증을 통한 부모의 민주적, 비민주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7(2), 73-93.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영애, 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3(2), 69-85.
- 조한익 (2013). 정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교육, 22(1), 313-324.
- 주은지 (2009).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정서조절력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4.
- 한국교육개발원 (2005). 한국교육종단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허묘연, 옥정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13(3), 116-123.

- 홍봉선, 남미애 (2005). 청소년복지론. 파주: 양서원.
- 황혜자, 최윤희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2), 1-10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Carlson, C., Uppal, S., & Prosser, E. C. (2000). Ethnic differences in process contributing to the self-esteem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 44-68.
- Chen, X., & Li, B. (2000). Depressed mood in chinese children: Development significance for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4(2), 472-479.
- Cole, D. A. (1991). Preliminary support for a compecency-based model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ical Bulletin*, 93, 542-575.
- Eskilson, A., Wiley, M. G., Muehlbauer, G., & Dodder, L. (1986). "Parental Pressure, Self-esteem and Adolescent Reported Deviance: Bending the twig too far." *Adolescence*, 21, 501-515.
- Fehrmann, P. G., Keith, T. Z., & Riemers, T. M. (1987). Home influence on school learn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 involvement on high school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0, 330-337.
- Gonzalez, A. I., & Wolters, C. A. (2006).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mathematics. *Journal of Research of Childhood Education*, 21(2), 203-217.
- Hinde, R. A., Easton, D. F., Meller, R. E., & Templin, A. (1983). Nature and determinants of preschoolers' differential behaviour to adults and peers. *British Journal Development Psychology*, 1, 3 - 19.
- Lepper, M. R., & Cordova, D. E. (1992). A desire to be taught: Instructional consequences of intrinsic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16, 187-208.
- Op't Eynde, P., De Corte, E., & Verschaffel, L. (2007). Students' emotions: A keycompon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P. A. Schutz & R. Pekrun (Eds.), *Emotion in education* (pp. 185-204). San Diego: Elsevier Inc.
- Pekrun, R. (2000). A social-cognitive, control-value theory of achievement emotions. In J. Heckhau sen (Ed.), *Motivational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pp. 143-163). Oxford, Uk: Elsevier.

- Pekrun, R., Elliot, A. J., & Maier, M. A. (2009). Achievement goals and discrete achievement emotions: A theoretical model and prospective tes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 583-597.
- Pekrun, R., Goetz, T., Frenzel, A. C., Barchfeld, P., & Perry, R. P. (2011). Measuring emotions in students' learning and performance: The 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 (AEQ).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6*, 36-48.
- Pekrun, R., Goetz, T., Titz, W., & Perry, R. P. (2002).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A program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7*(2), 91-105.
- Pong, S., Hao, L., & Gardner, E. (2005). The roles of parenting styles and social capital in the school performance of immigrant Asian and Hispanic adolesce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6*(4), 928-950.
- Radziszewska, B., Richardson, J. L., Dent, C. W., & Flay, B. R. (1996).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smoking, and academic achievement: Ethnic, gender, and SES differenc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9*(3), 289-305.
- Sander, W. (1998). The effects of schooling and cognitive ability on smoking and marijuana use by young adults. *Economics on Education Review, 17*(3), 317-324.
- Susman, E. J., Schemmlk, K. H., Pinarakis, A., & Garipey, J. L. (2001). Maternal prenatal, postpartum, and concurrent stressors and temperament in 3-years-olds: A person and variable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629-652.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Emotion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Maternal Rearing Attitude

Kwon, Seung
Dong-Eui University

Yang MiJin Lee, TaeYoung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ion

This study aimed to classify patterns of maternal rearing attitude depending on combination of maternal democratic rearing attitude and undemocratic rearing attitude.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emotion according to patterns of maternal rearing attitude. For this study,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ere 851 middle school students who completed questionnaire survey of maternal rearing attitude,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emotion. These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version 21.0 and K-means cluster analysis and MANOVA were appli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luster analysis identified four distinct patterns of self-regulated learning named by their characters(ambivalent group: cluster1, undemocratic group: cluster2, average group: cluster3, democratic group: cluster4).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in four groups(they showed higher score in order of cluster4, 3, and 1, 2). Third, in the case of academic emotion, cluster4 showed higher positive emotions(e.g, pleasure, pride) than other groups. cluster1 and 2 showed higher negative emotions(e.g, anxiety, anger, shame, despair).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some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 maternal rearing attitude,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emotion. K-Means cluster analysis